

위 피 백 과

2021학년도 06월  
문제 및 해설

실전  
화작  
풀어봤냐

글쓴이 윤지환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Design by. JH\_06

나훤

# 칼럼을 읽기 전에.

2021 / 6월 실전 해설

준비물    필기도구, 노트, 공부 의지!

목차      0. 유의사항 (꼭 읽으세요!)

1. 2021 / 06 문제 - 1p

2. 2021 / 06 해설 - 5p

# 유의사항.

<2021 / 6월>

**꼭 문제 먼저 풀고, 아래 순서에 따라 공부하세요.**

- ① 10분 재고 1~10 까지 '문제' 파트를 풉니다.
- ② 해설을 보기 전에 지문을 다시 보면서 '화법 개념', '작문 개념'에 맞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밑줄 치거나 형광펜 치세요. 선지도 마찬가지로 마칩니다.**
- ③ 빠른 답지가 없으므로 꼭! 해설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해설 읽으시라고 빠른 답지 없습니다.)
- ④ 해설에는 지문, 선지 해설 모두 있습니다.
- ⑤ 제 해설과 스스로 잡은 포인트를 비교하면서 사고를 교정해 나가세요!
- ⑦ 답 선지는 형광펜 표시되어 있습니다.
- ⑧ 꼭 노트 정리까지 하세요! 스스로 해보지 않고 해설만 읽고 넘어가면 실력 안습니다.

- 노랑 형광펜 -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 (출제 포인트, 본질)
- 빨강 형광펜 - 약하게 읽어도 되는 세부정보
- 초록 형광펜 - 답 선지

**다음 페이지부터 2021 / 6월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10분 재고 풀어봅시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식물성 플랑크톤, CO<sub>2</sub> 흡수, 염생 식물, 연안 생태계, 저장 C(블루카본), 염습지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 ①

○ 연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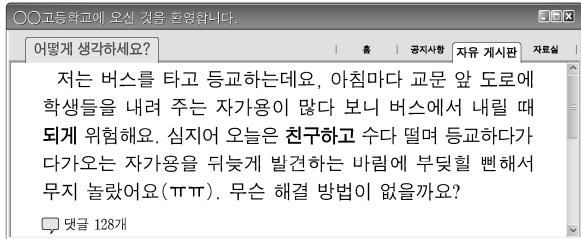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4~7]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학생 1 :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 학생 2 : 아, 등갯길 문제?
- 학생 3 :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 학생 1 :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갯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 학생 3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 학생 1 :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 학생 2 :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 학생 1 :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 학생 3 :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 학생 1 :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갯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 학생 2 :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 학생 3 :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 학생 1 :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 학생 3 :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 학생 2 : 그래. 그럼 이제 등갯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갯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 학생 1 :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갯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갯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갯길을 혼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짐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갯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등갯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서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안전한 등갯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 △일  
○○고등학교 학생회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인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 ④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각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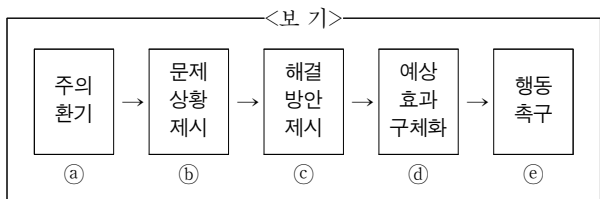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는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 등이 있다.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 등이 활용된다.

- ① ㉠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④ ㉣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그의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7.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서 안전한 등갯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갯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체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나)에서 등갯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예상 독자: 학교 학생들
- 전달 매체: 2020년 6월에 발간될 학교 신문

**[수집한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출처	연도(제작/발행)
<자료 1>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	○○신문	2019
<자료 2>	물 중독 사례	△△방송 다큐멘터리	2014
<자료 3>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	□□병원 보고서	2004
<자료 4>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	환경부 연례 보고서	2013

**[초고]**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 만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 섭취는 중요하다. 그러나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에 유의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가는 ‘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피로감이 커지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물 중독 환자의 모습을 보여 주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대학 연구 팀의 실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 팀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목이 마른지 물어보았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부여했다. 이후 관찰을 통해 이들의 물 섭취 유무를 파악하며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같다. 반면 일반적 생각과 달리 목마르지 않은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8.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선별된 자료를 반영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별 기준	그렇다	아니다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		
(나)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		

- ① <자료1>은 '내용'이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② <자료2>는 '내용'이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③ <자료3>은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출처'가 명확하고 물 섭취 실태를 보여 주기에 적절하다고 보아 (나)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④ <자료4>는 '내용'이 물 섭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 ⑤ <자료4>는 '출처'는 분명하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9. 위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문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한다.
- ② 1문단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 ③ 2문단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부분은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한다.
- ④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법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 ⑤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친구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에 마지막 문단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하는 게 좋겠어.

- ①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②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 물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만 물이 인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③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거나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안다면 물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물 중독 사례와 연구 팀의 실험을 통해 물 섭취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목마르지 않은데 마시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 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도 그러하다. 올바른 물 섭취를 생활화한다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설이군요. 각종 문제 포인트와 연설의 주제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 청중에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군요. 이전 문제를 보지 않아도 예측이 되어 합니다.
2.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를 보시고 청중의 공감 유도라는 선지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한편, 연설의 주제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이군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11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정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11위 따위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거죠. 또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정도의 선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네요.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노력도 하고, 산림 조성도 했네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연설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줄에 나오는 연안 생태계가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하다네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연설의 주제와 연결 지으면, '연안 생태계의 가치가 되겠네요. '연안 생태계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어?'하는 예상되는 반박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선지에 나오겠죠?

그 뒤에 나오는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정보,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 4%이지만 흡수량이 산림의 약 37%라는 정보는 모두 세부정보

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 한다는 것과, 산림보다 흡수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눈치가 있으시다면, '산림 vs 연안 생태계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기조가 비교/대조라고 생각하기에, 저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저장'도 잘한 다네요.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중점으로 계속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역시 세부정보이고, 블루카본도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연안 생태계가 탄소를 잘 저장하는구나!'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가면 돼요. 산림'보다' 탄소를 잘 저장한다는 생각도 가져가면 금상첨화죠 ㅎㅎ

또한 연안 생태계에서 탄소가 빠져나오면 안 되니,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주장도 체크해야 합니다.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가 연설의 주제였으니까요.

①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②을 보니 어떻게든 문제로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연안 생태계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같은 정보는 세부정보인 것 아니죠?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① 주장이 야기한 논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주장이 야기한 논란은 나오지 않았습디다. 주제와 완전 동떨어진 선지네요. 틀렸습니다.

② 통계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가 언급되었던 것은 기억나시죠? 통계자료가 나오면 신뢰성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③ 예상되는 반론 나왔었죠? 그 후로 연안 생태계의 가치도 강조했었습니다.

④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킨다고 예측했었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경험이었던지는 돌아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⑤ '지구의 보물'이라는 서술을 보면 비유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선지는 지문을 읽으면서 완벽히 잡아내기 힘들니, '문제 해결에 동참'이라는 선지의 키워드를 보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식물성 플랑크톤, CO<sub>2</sub>, 흡수, CO<sub>2</sub>, 흡수, 연생 식물, 연안의 연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 ①

저장 C(블루카본) 염습지

○ 연설 내용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 ⑤

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는 선지입니다. 맞는 소리죠? 제가 왜 세부정보를 판단하지 않느냐구요? 저는 평가원이 세부정보 따위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답의 직접적인 근거로 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낼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저라면 '연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내용은 ①~⑤번 선지까지 판단한 후에 답이 없으면 그때 지문으로 돌아가서 판단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믿고 ②번 선지로 가봅시다.

② 배출량 순위가 높았었죠? 정확히 얼마나 높았는지는 몰라도, 통계를 통해 제시한 정보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려 노력한 것은 당연한 거구요 ㅎㅎ

③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산림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체크했었죠? 올해 '비교/대조' 중요합니다.

④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 점이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였구요. 핵심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니 기억해둬야 합니다.

⑤ 기존의 방법을 이산화탄소가 대체? 지문의 내용은 '연안 생태계가 중요하니 보호하자'였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구요. 현재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핵심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기존의 방법과 '함께'라는 워딩도 나옵니다. 제가 이 해설을 메인으로 쓰지 않은 이유는 실전에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잘 읽어서 다른 방법과 '함께'라는 워딩이 기억났다면 금상첨화지만, 기억이 안 났어도 기존의 방법을 '대체'라는 워딩이 틀렸음을 알아채셨으면 좋겠습니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연설의 취지 =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보호하자>에 공감한 학생이 ①에 주목하여 설득한다 하네요. 그렇다면 분명히 연설의 주제와 북극곰 얘기가 나오겠죠? 고쳐쓰기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씩 찾는 편이 편합니다. 물론 한번에 찾을 수 있는 학생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좋아요. 한 번에 두 요소를 찾아내기 힘든 학생분께서는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연설의 주제 (연안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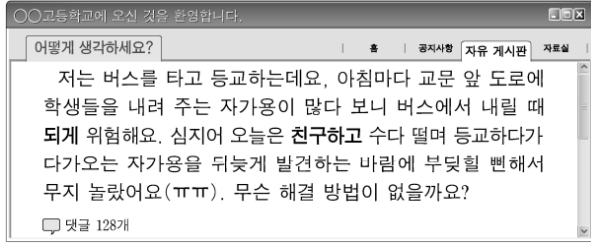
- ① 있네요.
- ② 있습니다.
- ③ 없습니다. 산림 조성은 개소리죠.
- ④ 있습니다.
- ⑤ 없습니다.

북극곰의 눈물 = 우리의 눈물

- ① 없습니다.
- ② 북극곰을 위해? 틀렸습니다. 물론 블루카본 얘기도 틀렸구요.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다네요. 맞습니다.

(4~7)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22 수능에 나올 매체를 반영하겠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핵심 내용을 잡아봅시다. **등교 시간에 자가용이 많다 보니 위험하다네요. 해결해 달랍니다.** 이게 대화,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나)

토의입입니다. (가)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 대화하겠죠? 항상 하던 대로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누가 누구의 의견에 반대하는지>**를 잡아가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떤 주장을 '누가' 하는지까지 기억하기 힘들다면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만 기억해도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학생 1: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가)의 글을 말하나 봅시다.

학생 2: 아, 등굣길 문제?

학생 3: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2, 학생 3도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등굣길 자가용 문제에 대해 대화하겠죠?

학생 1: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등굣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1이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생 3: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학생 3이 동의하네요. 또한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문제 포인트니 체크해줘야겠죠?

학생 1: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학생 1은 등교 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자고 주장 합니다.

학생 2: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야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반박합니다. 사실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야 맞는 서술이지만, 도구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기에 반박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1: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학생 1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학생 3: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학생 3은 학생 1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네요. (반대합니다.)

**<학생 1 vs 학생 2 & 3>임을 알고 체크하고 가면 좋겠네요.**

학생 1: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여전히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자가용 등교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학생 2: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학생 2도 여전히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생 3: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학생 3이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따로 언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드디어 대화의 주제가 바뀌네요. 지금까지는 자가용 등교를 자제하자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대화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다른 맥락의 대화가 제시됩니다.

학생 1: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학생 1이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장점>도 알려주자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지 하나하나 예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학생 3: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학생 3이 <자가용 때문에 위험했던 경험을 환기>시키자고 하고, <자료>를 사용하여 자가용 등교의 위험성도 제시하자고 하네요.

학생 2: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굣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학생 2는 <등굣길에 주변을 살피자>고 하네요.

학생 1: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대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학생들의 의견을 **예민하게 기억하자고 한 이유는, 대화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형식의 화법 & 작문 융합 지문은,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 곧 작문 계획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대화에서 언급되었는지 기억해야 하고, 글에 넣을 수사법 등이 언급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기억하여 글과 엮어서 읽어야 합니다.

흔히들 화법 & 작문 융합지문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주제가 똑같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주제가 따로 나뉘져 있는 것보다 쉽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가) 혹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나오는 대화, 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연결해 가면서요. 2021 6평의 과거제 지문과 비슷한 읽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①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협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②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③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 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는 (가)죠? 또한 학생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보아 (나)의 대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자가용 등교가 남에게 피해가 된다는 내용도 반영됐고, 자료를 통해 자가용 등교의 위험성을 나타내자는 의견도 반영됐네요. 이렇게 (나)와 (다)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예민하게 읽어야 하는지 알겠죠?

**한편, 학교 앞 도로가 유난히 좁다는 정보는 하나도 필요 없는 세부정보입니다.**

④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대해 언급해주자는 의견도 반영됐네요.

또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걷자는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왔네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서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도 서술되었습니다. 사실상 (나)에서 대화했던 모든 내용이 쓰였네요. 즉 (가)와 (나)를 다른 정보, 다른 지문으로 파악하시면 안 되며, **꼭 연계하여 읽어야 합니다.**

⑤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자고 학생들에게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군요. 항상 선지로 나오는 포인트죠?

2020년 △월 △일  
○○고등학교 학생회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인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 ④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매체를 의식한 문항으로 보입니다. 격식, 구어적, 문어적, 매체에 따른 언어의 특성 등이 출제 포인트로 나온 것을 보아 매체의 개념을 조금은 공부해 놓는 것이 올해 수능에 도움될 수도 있겠군요. 관련 개념은 아마 전자책으로 나올 실화냐에 정리되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어디까지 매체를 반영할지 모르기에, 미리 봐두어서 나쁠 것 없겠죠?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 ① 당연히 공식적 성격의 글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드러나겠죠?
- ② 선지 그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나)는 '홈피'라는 줄인 말을 쓰는 데, (다)에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문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어적’은 ‘구어적’이랑 반대의 표현이죠? ‘문어’와 ‘구어’의 차이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③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다)와 달리>를 나중에 판단하라고 했었죠? (가)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④ 선지를 보니 (나)에서 조사가 생략에 되었네요. 구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글을 쓸 때는 조사 생략을 하지 않는 편이 좋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조사를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죠.

⑤ (가) 또한 문어 상황이긴 하지만 구어적 특징을 가지나고 묻고 있습니다. (가)의 서술이 (나)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항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하게 틀린 선지**를 골라야 합니다. 애매한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1 vs 학생 2 & 3>의 구도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학생 3이 자신의 이해가 적절하지 확인했다면, 미리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포인트이기 때문이죠. [A]에 대해서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학생 2와 학생 3이 반대했다는 서술이 나와야 적절한 선지입니다.

③ [B]에서 학생 1의 의견과 상반되는 ‘다수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죠? 실전에서 선지의 모든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어도, ‘다수의 의견’ 따위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④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요약’한 적도 없을뿐더러, 학생 2의 의견의 한계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디다. 오히려 [B]까지 학생 2와 학생 3은 팀이에요.

⑤ [A], [B] 모두에서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고 묻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선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했는지’와 같은 세밀한 부분만 돌아가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학생 2

가 학생 1의 의견에 반대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깐요.

제가 해설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실제로 모든 부분을 한 번에 기억해서 풀라는 의도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A], [B] 부분으로 돌아가서 선지의 내용을 **천천히, 침착하게** 따지면 됩니다. 물론 누가 누구의 의견에 **반대, 반박**했는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평가 목표에 ‘반대’가 중요하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분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핵심적인 내용과 문제 포인트는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선지의 모든 파트를 발췌독으로 풀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설득 / 전략>과 <표현 / 방식>을 통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네요. 올해는 비교 / 대조가 중요하니 의식적으로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체크하시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는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논리적 추론이니까 이성적/설득/전략이군요. 전문가 소견, 자료, 예상 반론 등의 내용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보면 돌아와서 판단합시다.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 등이 있다.

감정에 호소하니까 감성적/설득/전략이군요. 마찬가지로 공감, 필자의 경험 언급 등은 나중에 확인해서도 됩니다.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의 공통점·차이점보다 설득 전략 내에서의 차이점이 부각되는군요.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 등이 활용된다.

표현 방식에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이 있다고 합니다. 평가원이 <보기>에 써준 이상, 적어도 올해 화작에서는 이중 부정, 설의법 등의 표현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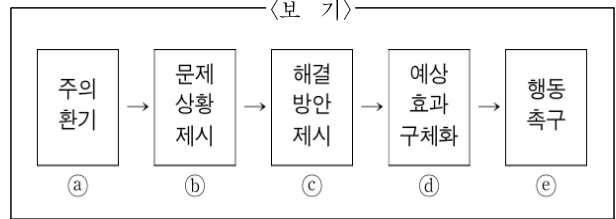
- ① ㉠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

겠어.

- ④ ㉞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그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㉟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① 예상 독자의 경험은 전문가와 아예 상관이 없죠? 관련이 있다면 오히려 감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이 있겠네요.
- ② 자신의 경험도 없을뿐더러,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에서 확인했던 자가용 등교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죠.
- ③ 구체적인 수치 = 자료이죠? (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 맞으니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지는 **제발 천천히, 침착하게 판단하세요.**
- ④ 특별한 경우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경우에 이해해주자'라는 의도였죠?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힌다는 표현이 틀렸네요.
- ⑤ 물음의 형식을 통한 청유형의 문장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설의법은 표현 방식이 맞죠?

7.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체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 (나)에서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나)와 (다)를 연결지어서 풀면 됩니다. <보기>의 내용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대로 (나)의 내용을 (다)에 잘 적용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침착하게 풀면 됩니다.

- ① 등굣길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하며 '등굣길' 문제를 언급하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 ②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나)에서의 대화 내용이 (다)에서 언급됐었죠? 틀리지 않았네요.
  - ③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 자가용 이용을 이해해 주자는 의도였지, 부지런한 등교 준비를 요청하자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 <부지런한 등교 준비>도 지문에 나왔던 용어이기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나)와 (다)를 엮어서 읽으며 '특별한 경우에 대해 체크했다면 틀릴 수 없는 선지이죠? **확실히 틀렸습니다.**
- ④ 자가용 등교를 하지 않을 때의 장점에 대해 (나)에서 대화했던 내용을 (다)에 반영했었습니다.
  - ⑤ '주위를 살피며 걷자'는 (나)의 대화 내용이 (다)에 반영됐었죠? 우리가 다 잡아냈던 내용이 문제로 나온 것뿐입니다. 문제의 형식에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판단하세요. 지문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화작에서의 신유형은 필연적으로 출제될 요소입니다. 이는 2022 예비 평가에 관해 서술해 놓은 제 기사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유형에 당황하지 말고 제발 천천히, 침착하게 푸세요.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예상 독자 : 학교 학생들
- 전달 매체 : 2020년 6월에 발간될 학교 신문

작문 목적은 올바른 물 섭취 방법입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글이네요. **예상 독자**는 항상 나오는 학교 학생들입니다.

**목적에 맞춰서 읽어봅시다.**

**[수집한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출처	연도(제작/발행)
<자료 1>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	○○신문	2019
<자료 2>	물 중독 사례	△△방송 다큐멘터리	2014
<자료 3>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	□□병원 보고서	2004
<자료 4>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	환경부 연례 보고서	2013

항상 말씀드렸듯이 **줄글로 된 자료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 그래프, 통계 등의 자료는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됩니다.

**[초고]**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 만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 섭취는 중요하다. 그러나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작문 목적**에 나온 것 같이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이 나왔네요.

**‘관절의 충격을 흡수,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은 세부정보입니다. 하나하나 물어볼리는 없어요. ‘물 섭취의 긍정적 역할’ 정도로만 판단하고 넘어갑시다.

우선,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에 유의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가는 ‘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피로감이 커지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물 중독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감, 피로감 커짐, 두통, 어지럼증, 장기가 붓는 현상’** 등은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물 중독의 현상이 나열되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큐멘터

리를 언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혔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아주 좋겠네요.

다음으로,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대학 연구팀의 실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목이 마른지 물어보았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부여했다. 이후 관찰을 통해 이들의 물 섭취 유무를 파악하며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같다. 반면 일반적 생각과 달리 목마르지 않은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섭취해야 좋다는 내용이군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험 내용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군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 경우 vs 목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마신 경우>를 비교하며 ‘물을 마시는 때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교 / 대조..** 아시죠?

전혀 어렵지 않은, 아주 전형적인 작문입니다. 그저 **작문 목적**에 맞게 **핵심적인** 내용을 잡아가며 읽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부정보는 항상 하던 대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선지에서 물어보면 **핵심**에 맞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지문과 대응하며 판단하면 됩니다.

8.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선별된 자료를 반영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별 기준	그렇다	아니다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		
(나)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		

- ① <자료 1>은 '내용'이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② <자료 2>는 '내용'이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③ <자료 3>은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출처가 명확하고 물 섭취 실태를 보여 주기에 적절하다고 보아 (나)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④ <자료 4>는 '내용'이 물 섭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 ⑤ <자료 4>는 '출처'는 분명하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아니 라고 보아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 ① <자료 1>을 확인하고, '내용'이 (가)의 질문에 적합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이 내용이므로 작문 목적에 부합하네요.
- ② 같은 과정으로 풀어봅시다. '물 중독 사례'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됐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틀리지 않았습니니다.
- ③ '연도'를 보니 2004년 자료군요. (나)의 질문에 대해 <출처가 분명한지>, <최근의 정보인지> 하나하나 확실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렷듯한 선지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2004년은 최근의 정보가 아니니 출처가 분명한지연경 (나)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없겠네요.
- ④ <자료 4>의 내용은 '수돗물 사용량 현황'입니다. 물 섭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 ⑤ <자료 4>의 출처와 연도를 살펴봤을 때, 출처는 분명하지만 선지의 진술대로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 2013년 은 최근의 정보라고 판단하기에 우리가 있네요. 따라서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네요.

9. 위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한다.
- ② 1문단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 ③ 2문단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부분은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 한다.
- ④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법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 ⑤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 ①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나왔지만 '묻고 답하는 구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오시면 됩니다.
- ② 1문단에서 '물 섭취의 이점'이 세부정보로 나왔었죠? 그 서술이 인과관계였는지는 역시 돌아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원인'과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나열'의 형식으로 되어있네요. 틀렸습니니다.
- ③ 2문단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해 각종 세부정보가 '나열'되었었죠?
- ④ 3문단에서 실험 방법은 나왔었습니다. 과정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는지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 ⑤ 비교 / 대조.. 아시죠? 이미 지문에서 판단했었습니다.

10. 위〈보기〉는 ‘초고’를 읽은 친구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에 마지막 문단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하는 게 좋겠어.

- ①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②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 물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만 물이 인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③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거나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안다면 물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물 중독 사례와 연구팀의 실험을 통해 물 섭취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목 마르지 않은데 마시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 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도 그러하다. 올바른 물 섭취를 생활화 한다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시 항상 나오는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포인트를 잡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선지를 걸러봅시다.

- 1.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사항
  - 1) 양
  - 2) 때
- 2.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의 긍정적 가치

1번으로 먼저 걸러냅니다.

- ① 둘 다 있네요.
- ② ‘양’에 관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 ③ ‘때’에 관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 ④ 둘 다 있네요.
- ⑤ ‘때’에 관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으로 답을 확정짓죠.

- ① 긍정적 가치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④ 긍정적 가치는 없네요.

①번이 답입니다.



## < 6평 화작에 대하여 >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평이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만약 이번 화작을 어렵게 느꼈다면, 그동안 양치기와 감으로 풀어오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공부를 덜 했을 가능성도 있구요.

자신이 화작을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반성하세요.

시험장에서 화작에 대한 나의 행동 매뉴얼은 있는지,  
그렇다면 떠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몸에 숙지되었는지,  
화작의 출제포인트를 알고 있는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지,  
화작의 각종 유형에서 하는 질문들을 아는지,,,

수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화작도 분명 평가원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이고, 19수능처럼 언제든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처럼 '선지를 조금만 세밀하게' 내도 학생들이 틀리는 것을 보아 준비하지 않으면 19수능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에 투자하는 시간의 1/10만 투자해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화작입니다.

공부하세요.

편한 공부 하려하지 마시구요.

편하게 공부하면 대학을 편하게 못갑니다.

명심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합시다.

하루의 공부가 끝나고 난 후에는 한없이 피곤하되, 뿌듯해야 합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 칼럼 계획 및 참고 사항

- <화작 - 실전 : 2015 ~ 2020 분석>
- 비문학 분석 칼럼
- 비문학 마지막 개념반 관심 있으면 010-5691-5561로 연락주세요.
- 질문은 <https://open.kakao.com/o/suhUaELb> , 010-5691-5561로 부담없이,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 오타 및 오류 제보는 쪽지, 댓글, 메일 등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검토 인원 없이 혼자 작업하는 거라 오타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ㅠㅠ
- 항상 화이팅입니다!